

특집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삼년이라는 세월만에 세계수준의 질로 만들었고 체세 포수를 국제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현명한 낙농가는 해낼수 있다고 본다. 항생물질 및 항균물질은 낙농가 스스로가 조금만 더 신경쓰면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믿는다.

영국에서 문제로 야기된 광우병 파동이 왜 우리나라의 쇠고기까지 과민반응을 보여 소고기값을 하락시켜 소사육 농가를 울려 놓고 축정당국에서 소수매 비축으로 값이 유지되고 그 여파도 잇을 만해서 회복되는가 했는데 질박도축우는 병든 소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도하여 또 다시 소 사육농가를 못되고 양심저버린 농가로 낙인찍어 버려 양축 농가와 소비자를 혼란케 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더니 요즘에는 0-157이라는 대장균까지 들먹여 양축 농가를 어렵게만 한다.

이런 여러가지 시련이 계속 발생하여 쌓이지만 우리나라의 2만여 낙농가는 각고의 노력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우유와 쇠고기를 만들어 내고 잘못된 인식은 우리 스스로 홍보매체를 통하여 선전하고 계도하여 잘못된 생각을 말끔이 씻어내는 노력을 낙농가와 유가공 및 축산물가공업자 그리고 축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해야만 한다.

우유가 영양이 풍부하고 쇠고기가 식량으로 충분한

조건이라면 우리 나라의 2만 4천의 낙농가 이대로 물러날수는 없다.

낙농가는 끊임 없이 연구와 노력으로 낙농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배합사료 값이 계속 인상되는 외적인 요소는 사료기반을 확충하여 사료원가를 낮추는 노력은 정부와 사육 농가의 몫이다.

잔류물질 검사강화나 체세포수 강화는 사육농가에서 갑작스런 충격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원만하게 시간을 두고 따라가게 해야된다.

질박도축우는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여 잘못된 인식을 청산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 병든 소의 처리 문제도 우물쭈물 할 것이 아니라 그소의 보상문제와 처리 문제도 확실하게 규정 지어져야 한다.

소값 하락은 수급에 불균형도 있지만 사육농가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 값이 인상되면 더 입식시키고 하락하면 더 하락하기 전에 처분하려 하는 사태때문에 인상과 인하 폭이 더욱 커진다. 사육농가는 그 반대로 하락하면 더 입식 시키고 인상될 때 처분한다면 값이 큰폭으로 들쭉날쭉을 앓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으로 낙농육우 산업은 지켜져야 하고 성장하여 우리 나라의 축산물 자급을 이루어야 한다. ⊕

마음을 모아 협력한다면



이 신 재
본회 전남도지회장

낙농산업은 지난 30년간 정부, 유업계, 낙농인의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여 국민 건강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산업이기도 하다.

WTO 개방 원년의 한해를 맞이하면서 목장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낙농인들을 실망케하고 있다. 유업체의 비방논쟁이후 건강 식품인 우유가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고 유업체의 이익권에 집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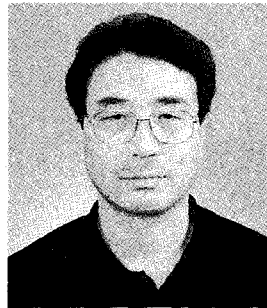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모조 분유수입이 가중되고 있어 분유재고를 14,000톤을 쌓아두고 있으며, 업종조합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낙농가를 비롯하여 낙농에 관련인들이 만나면 낙농문제 해결책에 관하여 반문을 한다. 그러나 대책다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업친데 덩친격으로 국제 사료 곡물 상승 요인으로 사료값이 급등되어 2차례에 걸쳐 약 20%인상이 되었으며, 잔유물질 검사강화, 환경오염 단속 강화, 원유 위생등급 강화, 소값하락 등 중복되는 문제들이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농가와 유업체는 경영난의 어려움에 못이겨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책 마련이 없는 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율경쟁시대 낙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낙농가 스스로의 자주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고 느껴지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자조금제도가 정착하여 생산자 단체가 대외 교섭력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농림부에 상정되었는 낙농진흥법이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낙농가 스스로의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 활동에 직접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양학자 Mccollom(맥콜럼)박사는 「우유와 유제품을 높은 문화와 과학을 발달시켜 왔다」고 말하였으며, 영국의 수상 처칠은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의 영향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완전식품을 정부, 유업체, 생산자, 소비자가 마음을 모아 협력한다면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한우는 국제경쟁력을 갖춰 해외에 수출할 전략품목이 아니다



황도정
경기육우회장

농림부의 쇠고기 수입개방(2001년)에 대한 산지소 값 정책목표가 500kg기준 200만원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국내의 생산여건에 따른 원가 산출이 극히 잘 못된 것이다. 한우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출 전략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우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쌀을 먹고 김치를 먹듯이 한우고기를 먹는 것이다.

그렇기에 축산농가는 우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한우육을 생산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축산 농가는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물질 잔유물문제와 절박도축우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에 항생물질 잔류물문제는

첫째, 사료회사에서 마지막 비육완성단계의 사료에 대하여 향후 문제 발생시 보상차원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우리 축산 농가는 안이한 사육 방법에서 탈피하여 내가 생산한 쇠고기가 최고의 육질과 안정성 있는 고기가 될 것이라는 지부심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축산관련 공무원과 유관단체로 하여금 비육농가에 대한 현장위주의 철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육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된다.